

광산구 겨울철 제설·취약계층 보호 종합대책 가동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신속한 제설 대책과 취약계층 보호 등 겨울철 자연 재난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은 최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12월 매듭달 지성회의’를 통해 철저한 제설 대비와 취약계층 보호 등 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겨울철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꼼꼼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광산구는 내년 3월 15

일까지를 겨울철 자연 재난 대비 기간으로 운영한다.

박병규 청장은 ‘현장 중심의 사전 대비’를 강조했다. 산단이 많이 분포한 광산구 여건을 고려해 폭설로 인한 교통 정체와 고립을 방지하고, 제설 마흡으로 보행로, 이면도로 등 통행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를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광산구는 제설 대책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및 강설 시 신속하게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민안전과와 건설과를 중심으로 제설대비 상황반을 편성, 운영한다.

기상특보가 예보되면 제설 장비와 인력을 현장에 배치, 제설제를 사전 적재해 교량, 교차로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제설제 사전살포 등 조치에 나선다.

이면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대한 제설 대책도 강화한다. 소형염화칼슘 살포기 13대, 다목적 소형 제설

차량 6대, ‘블러쉬’·‘블러워’ 17대, 소형 염수 분사기 40대를 제작·설치해 이면도로에 대한 시민밀착형 제설 대책을 추진한다.

동에서는 사회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제설단을 꾸려 육교, 경사로, 버스정류장 등 통행에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눈을 제거한다. 제설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골목길, 이면도로는 동별 지역민방위대, ‘트랙터 제설단’과 협력해 제설작업을 한다.

/서기만 기자

북구,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선정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환경부가 주관한 ‘2024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폭염, 한파 등 급격한 기후변화 영향에 효율적인 자체 대응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해 환경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북구는 이번 지원사업 공모에서 ‘사회복지시설 차열 페인트 도장사업’이 선정됐다.

본 사업은 저소득 계층이 다수 밀집돼있는 북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 14개소를 대상으로 태양열 반사 및 차단 기능이 있어 실내 온도 저감효과가 뛰어난 차열 페인트 시공을 지원해 복지시설 주 이용자인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폭염 취약계층의 여름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확보분과 지방

비 매칭분을 더해 총 2억 8천만 원이며 북구는 오는 12월 중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상반기 내에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사업효과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북구는 차열 페인트 도장사업을 통해 복지시설 재실 환경 개선은 물론 건축물 에너지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에 불평등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보호 지원사업 다양화와 내실 다지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선정돼 기후친화형 ‘어린이 놀이쉼터’, ‘유아 폭염쉼터’ 조성 등 총사업비 2억 5천만 원 규모의 취약계층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김재섭 기자

남구, 여성친화도시 지정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정부 주관 ‘2023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심사에서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정책을 활발하게 펼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정부에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심사에서 지난 2012년에 첫 번째 선정된 이후 2017년과 2023년에도 성과를 거뒀다.

올해 평가에는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5개 분야 12개 지표가 반영됐다.

이번 심사에서 결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남구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 참여를 비롯해 지역사회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남구여성네트워크와 함께 마을공동체 단위의 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멘토-멘티 연계사업 등을 다양하게 펼쳐왔다.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39.3%까지 끌어 올리고,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7명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1명을 예비 창업자로 육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정희태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 산수1동 주민자치회(회장 김승도)는 2023년도 마을 의제 실행사업인 ‘아파갤러리 조성사업’ 결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구청 제공

동구 “주민이 만든 ‘아파갤러리’ 구경오세요”

광주 동구(청장 임택) 산수1동 주민자치회(회장 김승도)는 2023년도 마을 의제 실행사업인 ‘아파갤러리 조성사업’ 결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수1동 주민자치회는 2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산수1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한 무등로449번길 일대에 조성된 아파갤러리를 전격 공개하고, 조성 과정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산수1동 주민자치회는 아파갤러리 조성 공간을 대상으로 올해 초, 마을 의제인 ‘소방도로 확보와 쾌적한 골목 환경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방치된 화단을 철거하고 도로를 포장해 통행 환경을 개선한 바 있다.

김승도 회장은 “올해 2월부터 화단 철거 사업부터 아파갤러리 조성

까지 산수1동의 1순위 마을 의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만족스럽다”면서 “아파갤러리가 산수1동과 주민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다양한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갤러리에서는 올 한 해 진행해 온 산수1동 주민들의 마을 활동 사진과 어린이들의 그림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유빈 기자

서구, 이웃돌봄단 활동공유회 성료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최근 서구청 들불홀에서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활동공유회’를 개최했다.

서구는 지난 3월 공개모집을 통해 108명의 ‘우리동네 이웃돌봄단’을 구성해 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 위험에 처한 대상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고독사 위험가구 2천397명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1천418명을 지속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방문과 안부확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대상자도 꾸준히 발굴하고 있다.

이번 활동공유회에서는 이웃돌봄단이 그동안 고립된 이웃을 방문하고 숨은 이웃을 찾으면서 직접 겪었던 다양한 사례를 서로 나누며 향후 이웃돌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활동가들은 우수사례로 ▲전수조사를 통해 홀로 살며 연락하는 가족이 없는 대상을 발굴하는 ‘마음을 푹푹(양동)’ ▲상무2동 ‘마을언니’를 통해 지속적인 안부를 확인하는 ‘고독사 멈춰!!(상무2동)’ ▲매월 ‘찾아가는 주민 감동 상담소’운영하는 ‘누나가 돌아왔다(금호1동)’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집중 모니터링과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공공 숨고 싶은 외톨이(동천동)’ 등의 활동 내역을 발표했다.

송경애 서구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이웃돌봄단 활동공유회를 통해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고 평가해 앞으로 소외되고 고립된 이웃이 없는 서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공정과 상식